



평택생산기지 복측공유수면 매립

# 새롭게 땅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 글 | 김 승 희 객원기자 · 사진 | L&S

평택생산기지는 통영, 인천과 더불어 우리 나라에 있는 LNG 가스탱크기지 중 한 곳이다. 통영은 경상도와 전라도에, 인천은 서울과 인근에, 이 곳 평택의 가스는 경기도와 충청권으로 보급된다. 하지만 점차 중부권 지역의 발전용 신규 수요가 늘어나고 신도시 개발에 따라 도시 가스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저장탱크기지를 증설하기 위한 산업부지가 필요하게 됐고, 이를 위해 기존에 있던 평택기지의 복측공유수면을 매립해 25만평의 부지를 조성하는 공사를 쌍용건설이 맡게 됐다. 공사기간이 2000년 1월 24일부터 2004년 8월 31일에 이르기까지 4년 6개월에, 공사금액이 무려 1,2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매립공사였다.

